정보

개요

항목	내용
작곡가	Darius Milhaud (1892–1974)
작품명	*Le bœuf sur le toit*, Op. 58
장르	단악장 ballet-pantomime(무언극 발레)
작곡	1919년
초연	1920년 2월 21일 Paris Comédie des Champs-Élysées, Vladimir Golschmann 지휘
무대 구상	Jean Cocteau의 시나리오 , Raoul Dufy의 무대미술
음악적 재료	Milhaud의 자작 후렴과 최소 28개의 브라질 대중음악 주제

IMSLP: Le bœuf sur le toit, Op. 58

Wikipedia: Le Bœuf sur le toit

Milhaud의 *Le bœuf sur le toit*는 1919년에 쓴 단악장 무대음악으로 , 처음에는 Chaplin식 무성영화에 붙일 `Cinéma-Symphonie` 구상에서 출발했다 . Jean Cocteau가 이를 1920년의 ballet-pantomime으로 바꾸면서 , 음악은 빠른 후렴과 브라질 도시음악 인용을 무대의 희극적 소동과 결합하게 되었다 . 작품 전체는 공식 악장으로 나뉘지 않으며 , 하나의 후렴이 여러 에피소드 사이를 반복해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창작과 무대화

Milhaud는 1917년 Rio de Janeiro에서 Paul Claudel의 외교 업무를 보좌하면서 삼바 , maxixe, tango brasileiro, choro 계열의 도시음악을 접했다 . Philharmonie de Paris는 제목이 José Monteiro의 maxixe `0 boi no telhado`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 Milhaud가 Ernesto Nazareth와 Marcelo Tupinamba의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며 익힌 선율 기억은 이 작품의 실제 인용 재료가 되었다 .

초기 구상은 빠르고 명랑한 15분 안팎의 영화용 음악이었다 . Cocteau는 이 음악에 미국 금주법 시대의 bar를 연상시키는 공간 , 바텐더와 손님 , 경찰관 , 권투 선수와 서커스적 인물을 배치했다 . BnF의 공연 기록은 Cocteau의 farce, Raoul Dufy의 무대미술 , G. P. Fauconnet의 의상 , Fratellini 형제의 출연을 함께 적는다 . 음악의 속도와 판토마임의 느린 몸짓이 서로 다른 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 무대 구상의 중요한 조건이다 .

1920년 2월 21일 Paris의 Comédie des Champs-Élysées에서 Vladimir Golschmann이 지휘한 초연은 이 음악과 무대 구상이 결합한 첫 공연이었다 . 이후 작품은 발레, 판토마임, 관현악 환상곡이라는 여러 이름으로 소개되었지만 , 현재 연주회에서는 대개 무대 동작 없이 관현악 단악장으로 연주된다.

출판과 판본

피아노 네 손판은 1920년에 Éditions de la Sirène에서 출판되었다. 관현악판은 이후 Max Eschig와 Eschig 계열로 전승되며, Durand-Salabert-Eschig 카탈로그는 관현악판 ME 6562와 피아노 네 손판 ME 8255를 제시한다. 자료에 따라 관현악판의 연도와 초판 표기가 달라지며, 정확한 서지 정보는 사용하는 총보의 판본 기록에 제시된다.

소요 시간

관현악판은 대체로 약 1519분이다. LA Philharmonic은 약 15분, Philharmonie de Paris와 Durand-Salabert-Eschig는 약 1719분을 제시한다. 무대판에서는 판토마임, 장면 전환과 출연진의 움직임이 추가되어 체감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음악만 연주하는 경우와 공연 전체의 시간을 구분한다.

편성

관현악판은 플루트 2(제 2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 1, B-flat 클라리넷 2, 바순 1, 호른 2, C조 트럼펫 2, 트롬본 1, 타악기와 현악기로 구성된다. 타악기에는 귀로, 탬버린, 큰북, 심벌즈가 포함되며, 카탈로그에 따라 한 명 또는 두 명의 연주자로 배치한다. 편성 목록은 판본과 프로그램의 요약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겸주와 타악기 수는 사용하는 총보의 파트 표기에 따라 달라진다.

단악장 형식과 음악적 재료

후렴과 에피소드

Philharmonie de Paris의 해설은 Milhaud가 만든 자작 선율이 작품 전체를 묶는 후렴으로 돌아오고, 그 사이에 최소 28개의 실제 브라질 주제가 삽입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브라질성은 막연한 분위기가 아니라 선율의 출처와 인용 방식에 자리한다. 후렴이 돌아올 때마다 주변 악기와 조성 영역이 달라지면서 , 같은 표지가 새로운 무대 상황으로 이동한다.

다조성과 리듬의 결합

여러 선율은 서로 다른 조성 영역에 겹쳐 놓이며, 배경 화성보다 선율의 충돌 자체를 전면에 드러낸다. 빠른 춤 리듬과 반복되는 후렴은 음악을 계속 앞으로 밀어가고, 무대에서는 그 속도와 어긋나는 느린 몸짓이 희극적 긴장을 만든다. 이러한 다조성적 배치는 인용된 선율을 하나의 민속 모음으로 정리하기보다 , 도시의 소음과 가면극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장면으로 묶는다.

종결과 무대의 소동

후렴과 에피소드가 거듭 교대하면서 경찰관의 등장과 술집의 소동이 무언극의 마지막으로 수렴한다. Cocteau 의 시나리오에서는 bar가 우유만 파는 가게로 위장되고, 서커스적 출연진과 초현실적 사건이 이어진다. 관현악 연주에서는 이 구체적인 동작이 생략되지만 , 반복 구조와 급격한 선율 교대가 사건의 순서를 암시한다.

영화 구상, 무대판과 연주회판

Cinéma-Symphonie 라는 초기 발상은 화면의 빠른 장면 전환을 상정했지만 , Cocteau가 붙인 대사 없는 무대 동작은 음악의 속도와 신체의 속도를 분리했다. BnF와 Cocteau 자료가 전하는 bar, 가면, 경찰관과 서커스의 요소는 이 음악이 특정한 줄거리를 노래하는 오페라보다 시각적 행동을 위한 리듬 장치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연주회판에서는 장면의 소품과 배우가 사라지고, Milhaud가 만든 후렴과 브라질 선율 인용의 배치가 곡의 진행을 직접 맡는다. LA Philharmonic은 작은 목관 ·금관과 타악기 편성, 약 15분의 길이를 제시하며, 이 음악이 대편성의 색채보다 선율과 리듬의 선명한 교대에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무대의 역사와 관현악판의
청취 범위는 서로 연결되지만 , 두 공연 형태의 시간과 시각적 정보는 동일하지 않다.

주요 자료

Durand-Salabert-Eschig, Darius Milhaud 작품 목록

Philharmonie de Paris, Le Bœuf sur le toit 프로그램

Philharmonie de Paris, 추가 공연 자료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920년 공연 서지

Los Angeles Philharmonic, Le bœuf sur le toit

IRCAM, Le bœuf sur le toit

Jean Cocteau 자료, La farce du bœuf sur le toit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9:02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9:02 UTC by 안준영